

역사적 삶과 문학적 응전력

趙廷來의 「太白山脈」을 말한다

金鍾會

문학평론가

1980년대의 마지막 殘光이 역사의 지평선 너머로 이울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근대사가 어느 한 부분도 온전하고 합당한 형상으로 그 자리를 보전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80년대는 그야말로 격동과 변혁의 시대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광주항쟁으로부터 시발되는 역사적 사회의 혼돈된 가치관과 누적된 민족모순의 척결을 표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부응하는 주체세력에 있어서도 '주변부로부터 중심부로의 공간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다시 말하자면 강고한 지배이데올로기의 그늘에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民草들의 삶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규율하는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이와같은 사회변혁의 물결과 함께, 1983년 9월에서 1989년 9월에 이르는 6년간의 끈기와 노고 위에 세워진 문학적 성과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하되어 있는 민족모순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분단상황이라면, 작가는 이 험거운 상대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본질적인 성격과 전후문학을 구명하기 위하여 「태백산맥」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체적 시각의 돋보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다.

모두 10권의 방대한 분량에 달하는 이 대하소설의 다양한 관점 가운데 좌익 파르티잔의 사고와 행위가 구체적 서술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회성격의 변화가 필요조건이었고, 이제는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소설문법들의 구체적 세부를 통하여 고통스러운 우리의

근대사와 현실적인 모순점들을 다각적으로 가능해볼 수 있는 잣대를 얻게 되었다.

억압과 피억압의 대결구조 드러내

「태백산맥」은, "아침에 일어나보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바이런의 저 유명한 레토릭이 표방하는 것처럼 속성재배나 단병접전의 방식에 입각한 문학적 소산이 아니다. 그것은 40여년에 걸친 분단사에 견주어 볼 때 작가가 소설제작에 투여한 6년이란 세월이 결코 길지 않다는 시간개념에 근거하는 지적에 그치지 않는다. 한 작가가 새로운 역사해석과 사상적 관점, 생동하는 인물군과 복합적인 작품구성을 포괄하여 우리 문학사에 하나의 에포크를 이룰 만한 야심작을 완성하기까지 그러한 역량의 성숙을 예비한 前史의 작품활동의 궤적이 없을 수 없다는 말이다.

조정래는 뛰어난 스토리텔러이다. 그는 초기에 카츨사, 기지촌 등 유별난 얘기거리가 많은 소재를 자주 다루었고, 분단문제에 관해서는 차츰차츰 관심의 농도를 더해왔다. 「청산맥」 「한, 그 그들의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분단현실은, 「어떤 전설」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에서 작품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으며, 중편 「유형의 땅」과 장편 「불놀이」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무렵까지도 우리의 눈에 익숙한 소재로서의 분단문제가 식상함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폭넓고 흥미있게 소설적 스토리를 끌고 나아가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역량에 힘입은 바 컸던 것이 사실이었다.



80년대 한국문학의 가장 값진 성과 중의 하나로 꼽히는 「태백산맥」은 분단상황의 본질적 성격과 전후문학을 구명하는 총체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작가는 분단시대의 다음에 올 민족화합의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사적 통찰의 프리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유형의 땅」과 「불놀이」에서 가열한 역사체험의 당사자가 조직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인텔리가 아니라 본능적인 행위의 기민성이 앞서는 무지한 인물이었음을 살펴보면, 기실 「태백산맥」의 염상진을 통해 작가가 발화하고 있는 주체현으로서의 역사해석이 오랫동안 자신의 내부에 다독거리며 갈무리해온 세계인식의 前景化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태백산맥」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는, 언젠가의 私席에서 "조정래의 명료한 사고는 「불놀이」의 배점수가 아니라 「태백산맥」의 염상진에게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호언한 바 있다.

「유형의 땅」과 「불놀이」, 그리고 「태백산맥」에 걸쳐 일관되게 확인되는 것은, 그의 세계인식 방법이 어떠한 형태이든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관계로 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문제를 소재로 한 그의 모든 소설

들은 이와같은 의형을 벗어나지 않는다. 「불놀이」에서 "우리만의 삶의 아픔과 고뇌"를 그리고자 한다는 작가의 말은, 곧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상황, 즉 한국전쟁 속에서 발생한 억압과 피억압의 상관관계를 소설로 쓰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그에게 더 문제되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옳고 그름이나 선택이 아니라,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그 와중에서 포착되는 인간관계의 필진한 진정성일 터이다. 「불놀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인과응보의 세상살이 법칙은 바로 그러한 면모를 대변하고 있다.

상투성 벗어난 역사해석의 새 지평

그렇다면 「태백산맥」에 이르러 그와같은 측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다음의 순서이다. 이 소설의 주된 무대가

엔리코

● 마르셀 무르지 지음
● 김병욱 옮김
● 신국판 / 값 3,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사르트르, 레이몽 쿠노, 앙드레 말로가 제정한 프레이야드 상 수상작품!

나는 깊은 충격과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 작은 소설이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했다.

— J. P. 사르트르 —

‘열 네 살 때 썼다가 열아홉에 고쳐 쓴 이 작품이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다’고 술회한 작가 무르지. 슬픔과 우울을 배경으로 일상화된 빈곤, 광기, 증오를 조명하고 엄마의 정신착란과 개로 비유되는 부르조아, 한 소년노동자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노동쟁의…… 이들을 적절하게 대비시켜 부연하고 있다. 실존주의가 점지한 소년 엔리코를 통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말해주고 싶은지도 모른다.…… 주인공 엔리코는 작가 자신이다.

슬픈 나. 엔리코는 미치광이 엄마와 술주정뱅이 아빠의 삶을 여과시키는 ‘청량제’일 뿐입니다. 나는 열다섯의 사내아이 이름은 엔리코, 언제나 우울합니다. 엄마의 잔소리, 그리고 가난…… 어른들의 잘못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굴종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헤서원

되어있는 보성 벌교는 호남의 곡창지대이며 따라서 수대에 걸친 지주와 소작농의 계층분화가 극심하였고, 근대적 의식의 각성에 따라 소작쟁이가 빈번하였던 지역이다. 힘겨운 노동이 그에 상응할 만한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배계층의 부당한 갖가지 횡포와 인권유린이 자행되는데도 그들과 관변 세력의 결탁으로 인하여 서민들은 이를 하소연하는 일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통분한 현실이 눈앞에 있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응어리가 가슴에 맺혀 '恨'을 이루고 있었지만 흘러나갈 물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면, '보다 나은 세상'이나 '살만한 세상'을 향한 민중적 열망은 폭발적 잠재력을 안고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 시한폭탄의 뇌관에 불길을 당긴 것이 바로 좌익의 혁명사상이었고, 그것이 가진 강렬성이 현실부정적인 농민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더라도 심정적인 동조자가 되게 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 작가의 논리이다. 예컨대 '여순반란사건'과 같은 무장항쟁이 역사에 기록될만큼 큰 부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같은 동조여론과 지지세력이 그 지역사회에 편만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태백산맥」이 가지고 있는 역사해석의 지평에 있어서 가장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그린 다른 작가들이 항용 그러했듯이 '이데올로기 代理戰'이라는 상투화된 인식의 창을 통하지 않고 민족 내부의 자기 체계 안에서 그 원인과 결과의 맥락을 도출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순사가 들었다 허먼 몽당이 째질 당할 소리지만 서방님 앞이니께 허는디, 사람덜이 워쨌서 공산당 허는지 아시오? 나라에서는 농지개혁 한다고 말대포만 평평 싸질렀지 차일피일 밀치기만 허지, 지주는 지주대로 고런 짓거리 허지, 가난하고 무식한 것들이 믿고 의지할 디 없는 판에 빨갱이 시상 되면 지주 다 처 읍애고 그 전답 노놉 준다는 디 공산당 안헐 사람이 워디 있겠는 가요. 못헐 말로 나라고 공산당 맹글고, 지주덜이 빨갱이 맹근당께요.”

「태백산맥」에서 작가가 각별한 애정으로 그리고 있는 중도파의 인물 김범우에게 그의 집 소작적인 문서방이 하는 말이다. “문서방을 어찌 무식하다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김범우는, “충청도보다는 전라도가, 전라북도보다는 전라남도도 더 좌경세력이 강하다는 것과 문서방의 말과는 상통”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념의 칼날 무디게 만드는 휴머니즘

다음으로 살펴볼아야 할 것은 분단현실에 대한 이 작가의 판단이 어떠한 각도로 소설 속에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김범우와 쌍벽을 이루면서 이 소설의 주동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염상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물론 염상진이 소설 속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사회주의의 건설'이다. 따라서 그의

논리에서는 좌익계열이나 북로당이 가지고 있는 민족모순의 원인행위는 직접적으로 논거 되지 않는다. 그것은 소설적 인물설정의 규범상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작가는 이러한 측면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 부분부분 김범우의 시각을 활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빨치산이 사멸되는 소설의 결미에 이르러 이를 제기한다. 그러면서도 김범우의 형 김범준과 이해룡의 대화를 통해 있을 수 있는 반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염상진은 '사회주의의 건설'의 당위성에 관해,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 왕조를 거듭할수록 짓밟혀왔고 반만년의 역사는 가장 비인간적인 착취의 부끄러운 외양을 보이고 말았다는 인식으로부터 그 시발을 잡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 땅에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지주계급과 친일세력이 합세하여 남한만의 나라를 세우고 말았으며, 이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봉건계급제도가 일소된 나라, 착취계급을 완전 소탕해버린 나라, 그야말로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살리는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해방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 작가는 분단의 책임을 외세 열강의 각축에 의한 지정학적 사태로 돌리지 않고 남북 양측이 모두 그만큼의 악역을 감행했다는 균형있는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범우의 체험을 통해 외세가 이 땅에서 자행한 온갖 만행을 함께 부각시키기를 잊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소설의 전반을 관류하는 이념적 대립 가운데서도 작가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신실한 인간애이다. 양심적인 지주 김사용, 비판적 지식인 서민영, 건설한 의식을 가진 현지 계엄군 사령관 심재모, 박애주의자인 의사 권원장, 좌익계열의 안창민·정하섭·이지숙·하대치 등이 염상진 및 김범우와 더불어 노정하는 휴머니즘의 파노라마는 이데올로기의 예리한 칼날을 무디게 할만큼 힘이 있다. 우리가 「태백산맥」을 통하여 거두어들이 수 있는 공감과 감응력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에 빚지고 있는 바가 크다.

분단에 대한 민족사적 통찰 제공해

「태백산맥」은 그 분량이 말해주는대로, 우리의 힘겨운 역사적 삶에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문학적 저항정신의 소산이다. 분단시대의 다음 순번에 놓여져야 할 것이 민족화합의 통일시대라면, 그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민족적 지력은 분단시대의 깊이있는 바닥에 이를만큼 명확한 시대사적 통찰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찰의 프리즘이 우리 민족 내부의 중첩된 모순점들을 여과해 내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달했다고 할 때, 우리는 「태백산맥」이 마련해놓은 문학의 응전력을 가지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덧붙여 말하기와 「태백산맥」의 시도와 완성이 1980년대의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과 더불어 가능했다는 사실은, 또 하나 우리의 아픈 상처를 확인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도서출판 牧民

龍惠園 詩人의 詩와 에세이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43-29
전화 694-7043

네가 내 가슴에 없는 날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자꾸만 스러져 가는 친구에 대한 우정.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그 정을 더더욱 상실해가고 있다. 그러나 詩人은 그 퇴색된 우정을 본래의 색깔대로 복원하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의 심령을 부추기고 있다. 친구들의 진실한 우정을 위한 따뜻한 사랑이 담긴 연작시 「친구야」가 38편 수록되었으며, 그 외에도 40여편의 농축된 詩語속에서 불타는 민중의 소리와 이웃들의 애환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밝혀주는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
변형 신국판 144면·값 2,000원

門 열고 싶은 날



詩人의 세번째 詩集 「네가 내 가슴에 없는 날」에 수록된 38편의 연작시 「친구야」에 이어 또다시 43편의 연작시를 이 詩集에 이어주고 있다. 「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불러보아도」 「젊은이들의 노래」 「새벽이 오기 전에」 「꽃피울 날을 위하여」 등 103편이 수록된 이 詩集은 글자 그대로 진솔한, 그리고 매우 평범한 말들이다. 그러나 그는 많은 詩語속에서 그의 내면을 끝내 감추지 못하고 뜨거운 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단해진 문」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변형 신국판 160면·값 2,000원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혼탁해져가는 이 땅. 육신도, 정신도, 문화도, 생활도, 신앙도 아니 모든 것이 무분별하게 혼미의 수렁으로 숨가쁘게 달리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詩人은 간곡하게 외치고 있다. 결국, 그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의 돌아옴」을 강권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걸림되지 않고는 결코 현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으며, 그의 사랑하심과 보호의 인도하심을 헐일지 않고는 사악한 이 세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설교하고 있다.
변형 신국판 204면·값 2,500원